

2011 연세대학교 모의 합리적 판단 모범답안

작성자 : 정도환

작성일 : 2014-09-10

<문제 1> 제시문 (가)의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의 선택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을'의 선택을 설명하시오. (50점, 900자 내외로 쓰시오.)

제시문 (가)의 상황1과 상황2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과 손실을 줄이려는 상황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선 기댓값이 1만 1천원 결정보다 기댓값이 낮지만 안정적인 결정을 한다. 반면, 손실을 줄이려는 상황에선 기대손실이 큰 결정을 하며, 안정적인 결정을 회피한다. 이는 개인들이 항상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에만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함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 일본은 진주만 기습 결정을 한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본에 대해 열강들은 원자재 수입을 금하고, '10개항 강령'등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적지만 단기적으로 승리할 확률을 높게 보아,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상황2와 같이 손해를 최소화 하려는 상황에 대한 결정으로 일본은 커다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가능성을 낮게 보아 전쟁을 해, 그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상황2의 A와 같이 낮은 확률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갑과 을의 약초 캐는 방식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희귀하지만, 값나가는 약초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갑과는 반대로 을은 희귀하진 못하더라도 평범한 약초들을 구하려고 한다. 희귀한 약초가 값이 훨씬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높은 생명적 위험과 약초를 구하지 못해 빈 바구니로 하산하는 경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을의 상황은 제시문 (가)의 상황1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을은 비록 값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원한다. 이는 제시문 (가)의 기댓값은 낮지만 항상 안정적인 B와 같은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갑의 확률은 낮지만, 희귀한 약초를 구하려하는 사고방식은 상황1의 A와 동일한 사고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제시문들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적인 이득을 위해 계산을 통해 선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까)에서의 결과가 항상 기댓값이 높거나, 기대손실이 낮은 선택이 다수가 아니듯이 이득을 위한 계산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제시문 (나)의 일본도 이득을 위해 계산적 행동을 취했지만, 결과가 합리적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다)의 을보다 갑의 기댓값이 높을 수 있어, 제시문 (다)의 을도 완전한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처럼 주체들의 결정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결정이라기 보다, 주체들에게 당면한 확률이나, 이익 혹은 손실의 규모의 주관적 인지 정도에 큰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